

고혈압과 임상검사

김진규

【증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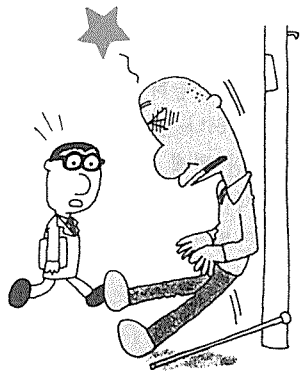
56세된 여자 환자가 버스를 타고 가다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우측 하반신에 힘이 빠지면서 제대로 딛지 못하고 넘어졌다. 안면 경련과 함께 말도 제대로 못 하였으며 의식도 혼미해져 즉시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내원시 혈압은 250/180mmHg 이었고 응급검사 결과는 Glucose 240mg/dl, Cholesterol 400mg/dl로 증가되어 있었으나 전해질검사(Sodium, Potassium, Chloride) 및 BUN, Creatinine검사는 정상 소견을 나타내었다.

혈액검사(CBC)상 이상소견은 없었고 뇨검사상 뇨당이 3+, Ketone 3+로 양성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학적검사 및 신경과학적 검사결과 고혈압성 뇌졸중이란 진단적 인상하에 전산화 단층촬영 등의 추가 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두개강 내출혈이 확인되었다. 뇌졸중 및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합병증 치료를 위해 내과로 입원 조치되었다.

【해설】

요즘처럼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고혈압을 갖고 있는 환자나 이른바 뇌졸중(Cerebrovascular accident)에 걸려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 경우 이학적 소견 및 병력청취에 의해 쉽게 뇌졸중이라는 진단적 인상을 갖게 될 수 있다.

이것은 고혈압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혈압환자를 위한 임상검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혈액검사(CBC)는 빈혈 유무와 백혈구 수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된다. 왜냐하면 빈혈은 심장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백혈구 수는 후속될 약물 치료를 위한 기본 검사로서 시행된다.

혈당검사는 당뇨병이 합병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며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쿠싱증후군과 Phochromocytoma 의 존재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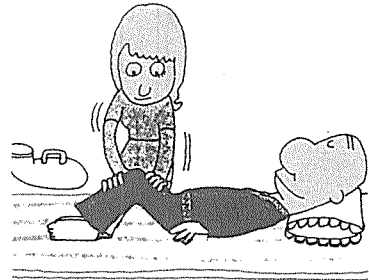
BUN과 Creatinine은 고혈압에 의해 신장이 손상을 입었는지 또는 신우신염이나 사구체성 신염 등의 일차성 신 병변의 진단을 위하여 보조적으로 시행된다. 전해질 검사에 의하여 Potassium이 저하된 것이 관찰되게 되면 부신피질의 장애를 의심할 수 있다.

요산 검사는 고혈압의 소 위험 인자의 하나로서 치유되지 않은 고혈압환자의 약 25%에게서 관찰되는 요산 증가를 알아내기 위하여 시행된다.

요검사는 신장질환의 유무와 정도를 검색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그리고 동맥경화의 위험인자를 검색하기 위하여 혈청콜레스테롤 등의 지질검사가 시행된다.

이러한 각종 임상검사를 고혈압 환자 관리를 위해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설이 없다. 대개 3개월에서 1년 등의 간격을 두고 검사를 실시하여 고혈압 환자의 상태의 호전이나 악화 등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데 치료 방침 및 치료약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임상검사의 종류 및 실시 시기 등이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면 thiazide의 약물 효과를 검색



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potassium검사라든지 methyldopa투여시 의뢰되는 간기능검사 등은 정기적으로 자주 실시하여 약물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및 합병증을 미리 알아내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증례에서는 혈당 250mg/dl, 요당 3+, 케톤 3+, 콜레스테롤 400mg/dl 등의 이상 검사소견이 관찰 되었다.

고혈압과 함께 당뇨병이 합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신장에도 약간의 손상이 있고 동맥경화의 위험유발인자가 된다고 믿어지는 혈청 콜레스테롤치도 높아서 고지혈증도 아울러 갖고 있었던 바 이러한 병적 상태가 어우러져 추운 겨울날 버스를 타고 가다 뇌졸중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의 특수검사로서 요코티졸 정량 검사와 metanephrine정량검사를 추가로 시행하면 고코티졸증 및 pheochromocytoma의 진단에 매우 유용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pheochromocytoma에 의한 고혈압은 수술로 떼어내기만 하면 고혈압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단을 놓쳐서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72

(필자=서울의대 임상병리과 교수)